

의식과 무의식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 건축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itional Expression of the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throug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 Focused on the Cultural Facilities since 1990s -

이완건* / Lee, Wan-Geon

Abstract

An architecture as a creative work can be expressed through its diverse conditions, such as humanitarian and social factors, the natural environments and also the each situations of that period. Thus, architects create their work based upon the experience that they have achieved in the past as well as the informations they have accumulated over the time. By this process architects used to achieve the design they hope to aim, whether it is made intentionally or not. This means that architects used to understand their works as it have the factors of the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ness.

This research looks to achieve a new design method by finding out how architects express the tradi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rough a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Hence, this research shall be a significance if it is applied to the process of modern architectural work with tradition concepts

키워드 : 의식, 무의식, 디자인 과정, 전통, 한국현대건축, 정신분석학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어진다. 여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 건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다.

건축이 시대와 사회의 모습들을 반영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양식이 존재하였고 건축을 통하여 당시의 모습들을 추정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건축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의 다양한 모습들, 즉 생활과 교육 등을 통해서 자신만의 디자인 관(觀)을 정립하게 되고 이것을 디자인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가는 자신의 의지를 내포한 디자인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건축가의 다양한 성장 과정 속에서 축적된 정보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디자인에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현대 건축

가들은 디자인 어휘로서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1960년대 이후 건축가들은 디자인 방법론으로 사용하여왔다. 전통성이 반영된 디자인은 세계화와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에 건축된 문화시설을 통해서 건축가들이 어떻게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통건축의 다양한 현대화 작업에 일조함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대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세계 여러 곳의 문화를 동시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에 의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의 건축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한 동안은 전통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전개된 적도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현대화 작업'은 계속되어 왔고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에 들어 우리의 문화예술 상황은 급격히 변하면서 건축에서의 전통 논의도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낳은 요인으로는 현대문화 예술의 특징적 경향인 다원주의, 신주관주의, 탈 규칙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¹⁾

본 연구는 현대건축 중에서 1990년 이후에 지어진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다른 용도의 건축보다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고, 시기적으로는 동시대의 건축을 통해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디자인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3장에서는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현대건축 사례들을 대상으로 의식과 무의식 차원에서 디자인 경향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의식과 무의식의 디자인 고찰

2.1. 디자인과 의식·무의식 세계

19세기말 인간에 대한 인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면서 서양의 전통적인 가치관, 종교관, 철학 체계 등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성보다 비이성적인 속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삶의 원동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리학과 정신분석은 의식과 무의식의 내적 탐구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진실 된 삶과 존재는 무의식으로부터 다시 찾음으로서 의식의 왜곡되고 기만적인 형태로부터 도피하여 우리의 습관과 행동의 동인(動因)을 알아낸다는 것이다.²⁾

또한 리글(Alois Riegl)은 '예술의욕(Kunstwollen)'의 개념을 사용하여 예술창작활동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미적 충동, 성향, 경향, 욕구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내적욕구는 '평면이나 공간에서의 윤곽선과 색채'로 표현된다. 이를 통하여 예술작품이 그 시대와 민족의 예술의욕을 표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디자인이라는 창조적인 행위는 의식과 무의식적이라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과 학습 등과 같이 디자이너의 의식 내의 흐름에 의하여 달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디자이너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디자인에 반영되어지기도 한다.

(1) 의식

의식(consciousness)의 사전적 의미는 뚜렷한 기억과 정신으로 무엇을 지각함 또는 그리하는 기능으로 정의되고 있다.

건축가는 의도적으로 디자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작가의 의식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작가의 의식은 디자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가의 전통에 대한 해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에 대한 해석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제한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진다.

(2) 무의식

우리들의 현실지각에는 무의식적인 측면이 관여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의 감각이 신체적 현상, 광경, 음향에 반응할 때라도, 그것들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외부 현실의 영역에서 내부의 마음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찍이 주목한 일이 없던 어떤 사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³⁾

예술가는 체험에 있어서 막연하나마 포착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은 무언가를 창조, 고안하고 그것을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첨가하고자 열망, 소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활동이자 리비도(Libido)⁴⁾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예술가가 무의식으로부터 끌어낸 상상력을 화폭이나 매체에 펼치며 또한 더 나아가 형태나 언어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예술가의 상상력의 유희이며 이것은 나면세계로부터 발생하는 무의식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⁵⁾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꿈의 분석에 자극을 받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우연과 무의식의 세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다양한 회화적 기법을 창출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환상은 물론 경험의 영역을 더없이 확충하기에 이른다.⁶⁾ 이렇듯 무의식은 의식의 영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축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공유물들을 무의식 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디자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융(C. G. Jung)은 무의식을 개인의 출생 이후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무의식과 어느 종족이 오랜 세월을 통해 체험한 것이 누적되어 종족의 성원이 공유하게 된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집단적 무의식 속에 전통문화의 내용물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2.2. 의식·무의식과 예술표현

융은 '의식이란 무의식에서 극히 작은 부분만을 구성하고 이것은 실로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하고 거대한 바다이며 있는 하나의 작은 섬과도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무의식은 쉽게 이야기하여 의식의 반대 개념으로서 모든 습관적이고 고정된 개념, 이성 따위의 영향을 배제한 심리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융은 무의식에 대하여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1)임석재, 한국 현대건축 비평, 예경, 1999, p.234.

2)하석원, 내재된 무의식이 조형예술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석사논문, 1995, p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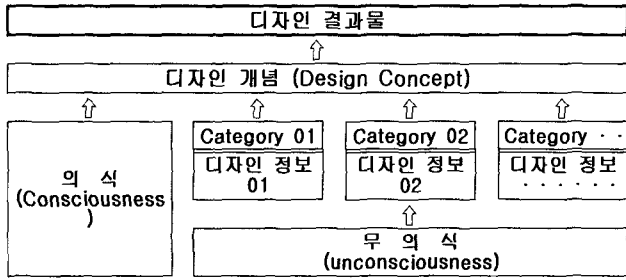
3)칼 구스타브 융 외, 이부영 외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p.18.

4)프로이드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힘, 융은 모든 에너지의 본체로 해석

5)하석원, 앞의 논문, pp.4-5.

6)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8,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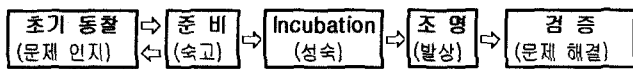
오래된 것 같다. 이것은 원형적인 내용으로서 여기에서부터 의식이 새롭게 소생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무의식의 근본적인 기능인 심리활동에 기초를 둔 의식은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산물이므로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원초적 개념임을 강조한 것이다.⁷⁾



<그림 1> 의식과 무의식에 의한 디자인 표현

디자이너는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식들 즉, 디자인 정보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범주화(Category) 시켜 위계를 만들어 저장하고 이것을 디자인 과정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디자이너의 정신세계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러한 디자인 정보들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디자인 개념으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랙스톤(Laxton, 1969)은 학교에서의 디자인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어린이들은 경험의 저수조(a reservoir of experience) 없이는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창조적인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수조에 해당하는 디자이너의 두뇌에 많은 양의 정보가 축적 되어야 하며 이것은 의식적인 교육에 의해서든 무의식에 의해서든 다양하게 습득되어진다. 결국 디자이너인 건축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이것은 건축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자인에 반영되는 것이다.¹⁰⁾



<그림 2> 창조적 프로세스의 5단계 모델

창조적인 디자인 과정(Design Process)은 몇 가지 단계¹¹⁾로 나뉘어 진다. 많은 학자들이 용어는 달리하지만 창조적 사고방식의 단계를 대략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준비' 단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포함되며, 학자들은 때때로 어떤 아이디어의 갑작스런 발상(illumination)으로 종결되는 '인큐베이션(Incubation)'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맥किन(MacKinnon, 1976)은 이것을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의 무의식적인 두뇌의 속도로 설명한다. 이러한 창조적인 디자인 과정에서 의식과 무의식은 각 단계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

3.1. 전통과 건축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나 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사회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민족은 각기 자신들의 건축 형식을 찾아냈다.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의상, 또는 민족이 독특한 것파도 같은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러 문화적 국경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지구상 어디를 가나 그 지방에 고유한 건축적 형태나 디테일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전통건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해결의 한 방편으로 탄생된 것인데, 일부의 해결방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된 후에야만 그 완벽성을 얻을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전통이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는, 전세대가 남긴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오직 전통¹²⁾ 속에서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발전시키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전통이 구속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충분한 상상력이 살아있는 전통의 온갖 무게로 지지되어 작품이 탄생되었을 때, 그 작품은 전통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아니면 전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창조된 일체의 작품들 보다 한층 더 위대할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은 사용될 목적으로 건설되며, 그 형태란 이전의 건축물에 준하여 결정¹⁴⁾되고 건물은 민중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매일매일 이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 어디에 있건 간에 한 개인의 작품의 거

7)Jeande Jacobi, 이태동 역, 칼 융의 심리학, 성문각, pp.15-19.
 8)이한석, 건축설계 초기단계에서 건축가의 설계정보처리, 대한건축학회지, 40권 6호, 1996, p.11. - 일반적으로 데이터, 정보, 지식 사이에는 구별이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사실이나 사건을 비구조적이고 랜덤하게 모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디자이너에 의미 있는 것으로 구조화한 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9)Bryan Lawson, 윤장섭 역, How Designers Think(디자이너의 사고방식), 기문당, 1996, p.140.
 10)본능은 동물적 또는 생리적 현상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나 무의식은 인간 의식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며 디자인에 관여하게 된다.
 11)앞의 책, pp.129-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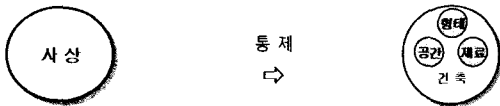
12)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 방안으로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그 중 최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지며 그것은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참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창출된 새로운 방안은 오랜 시간 적응기를 거치면서 또 다른 전통으로 굳혀지게 된다.
 13)Hassan Fathy, 정기용 역, Gournaa Tale of two Villages(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 열화당, 2000, pp.41-48.
 14)모든 창의적 건축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세워질 장소의 지역성이 반영될 것이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창조적 작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의 모든 부분은 별수 없이 기존 전통의 일부¹⁵⁾에서부터 나온 것이다.¹⁶⁾ 문화는 사회적 코드 체계로 이해되며, 적절한 기호들을 통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전반적으로, 문화는 다양한 텍스트(text)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들 코드(code) 사이의 위계로 볼 수 있다.¹⁷⁾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전통문화는 사회구성원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는 디자인들 보다 거부감이 적게 다가올 것이다.

3.2.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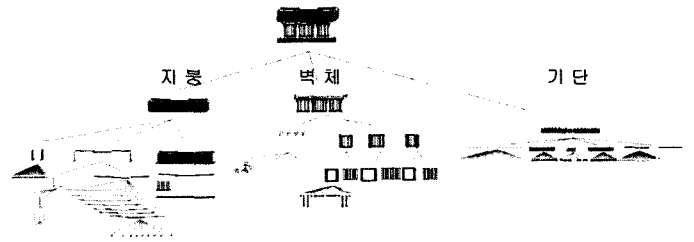
예술작품의 표현의미는 감성적인 표현의 가치기준과 이성적인 표현 기준이 서로 정·반·합의 순회적인 윤희 속에서 변천,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조형 표현에서 전통성에 대한 고려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성의 표현은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고래로 흘러 내려오는 흐름 즉 전통을 이해하고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파악하고는 그 기본조건 위에 지금의 사회적 상황이 요구하는 시대적 특성에 접목시킬 수 있게 하는데 표현의 원리를 두어야 한다.¹⁸⁾ 따라서 한국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쉽게 인지되고 체현될 수 있는 형태, 공간, 재료적 측면과 기타로 분류함으로써 분석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건축물이라는 창조적 생산물은 건축가의 디자인 방향 즉, 개인적인 취향 및 그 지역사회의 사상들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전통이라는 요소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상과 철학은 구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건축은 당시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들을 반영하게 되었고 이것은 구조 즉, 돌, 목재와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형태라는 것은 반드시 공간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공간은 건축의 본질-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의 형태와 공간, 재료 등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3>과 같이 건축을 지배하는 사상의 통제를 받으며 상호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그림 3> 건축 지배사상과 건축의 관계

한국 전통건축의 지배사상으로는 자연, 종교, 민속,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고 이것들은 단위체로서의 절대성이 아니라 서로간의 영향력을 미치며 각 건축 사상들은 폭넓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통건축의 형태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4>와 같이 삼단구성(三分)으로 되어 있다. 지표면에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벽체부분과 지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을 구분 짓는 디자인 기법들이 가해져 한국적인 건축물¹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한국 전통건축 입면의 3분할적 구성체계(지붕부+벽체부+기단부)

전통건축의 입면은 삼분(三分)된 수직체계로 분류되고, 그에 해당하는 건축요소가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분류체계는 우주를 질서화 하는 전통사회의 우주관과 맥락을 같이한다. 신영훈은 “천부경”의 天一, 地二, 人三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3이라는 수로 조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에서도 집 지을 터와 일으켜 세우는 기둥과 덮는 지붕의 3대 요소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전통건축의 3분법적 수직체계 속에는 전통사회의 조화된 우주적 질서가 건축물의 형태 속에 축소된 모형으로 표상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⁰⁾ 하늘과 땅의 형상을 많은 고문헌에서는 천원지방론(天圓地方論)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통건축을 삼분(三分)하여 天·地·人의 형상을 갖도록 한 것이다.

<표 1> 전통건축의 삼분(三分) 구성법

위 치	구성 요소	디자인 기법	형태 및 구성	의미와 도상
지붕 (上分)	서까래, 부연, 평고대, 기와 등	후림과 조로	맞배, 우진각, 팔작, 사모 지붕 등	天 - ○
벽체 (中分)	초석, 기둥, 문과 창, 공포, 도리, 장혀 등	안살림, 귀솟음, 배출림, 그랭이	門과 窓, 壁	人 - △
기단 (下分)	기단과 계단, 월대	퇴물림	토축, 자연석, 장대석, 가구식, 전축 기단	地 - □

15)디자이너는 자신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전통의 요소를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디자인 과정에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16)앞의 책, pp.49-50.

17)Diana Agrest, “Design versus Non-Design”,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K. Michael Hay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8), p.201.

18)이호진·김득선, 건축조형사교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7, p.149.

19)한국, 중국과 일본은 같은 목조문화권에 있지만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시 그 사회와 민족을 지배하던 사상과 철학 즉, 건축을 지배하던 사상이 달랐고 이것들이 건축의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강영환, 한국전통건축의 공간구성, 플러스, 통권24호, 1989, p.153. - 이러한 해석은 많은 풍수연구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임충신은 엘리아데(Eliade)의 해석을 빌어 풍수의 국은 하나의 소우주로서 그것의 중심에서 용(龍)이라 부르는 산(山)을 통하여 천지교통(天地交通)을 이루려는 무의식적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공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와의 관계에서 경험에 의해 공간을 추상화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건축적 공간의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용도, 기능, 계급, 양식 등의 차이에 따라서 나누어진다.²¹⁾ 안영배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의 유형과 구성기법을 성격에 의한 분류, 구성 기법, 진입방식, 축(軸)으로 분류하고 있다.²²⁾ 그리고 용도별로 구분하면 몇 가지로 요약되어지고 각각의 용도에 따른 디자인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통건축의 용도별 분류와 공간 디자인 원리

종류	내용	디자인 원리 및 구성	비고
궁궐	궁궐, 행궁, 별궁, 이궁	庫門→外朝→雉門→內朝→路門→燕朝 궁문→석교→중문→계단→정전(正殿)	三門三朝
관아	동헌, 객사, 내아 등	홍살문→외삼문→내삼문→좌·우 익랑→정청 객사+동헌+내아+향청+육방 관청	객사 지방 관아
교육	향교	홍살문→정문→동·서재→명륜당→동·서무 →삼문→대성전	前廟後學 →前學後廟
	서원	홍살문→정문→동·서재→강당→삼문→사당	前學後廟
종교	사찰, 당집	일주문→천왕문→불이문→대웅전	
주거		행랑채+안채+사랑채+(사당)+별채+각 마당	채 분화+유교

건축물의 구성방법은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재료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건축기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은 대부분이 나무와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재료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재들은 구조체이면서 동시에 외관을 구성하는 의장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식과 무의적 측면에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건축의 디자인 원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건축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현대건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이미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 공간 그리고 재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이외에 어떤 부분들에서 전통디자인 수법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성 표현에 있어서의 경향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4. 의식과 무의식에 의한 현대건축 분석

4.1. 의식적 표현 경향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전통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방법들에서 건축가의 전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현대건축에서 전통성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 형태

1) 직설적 표현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²³⁾를 직설적으로 사용하여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는 유형이다. 표현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한국 전통건축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대 사이에 많은 변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과거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직설적 표현방식은 쉽고 강렬하게 인지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성 표현이라는 디자인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청주예술의 전당에서는 기단을 장대석 기단의 이미지를, 벽체부분에서는 초석, 기둥, 주두의 형식을 갖추고 기둥에는 배흘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둥과 주두는 나무에서 돌이라는 재료가 바뀌었을 뿐 형태와 사용된 디자인 기법은 유사하다. 또한 지붕에서는 전통건축의 우진각 지붕 형태를 사용하면서 한옥의 처마곡선을 살리고 있다. <표 3>의 강릉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단, 벽체 그리고 맞배지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재료적인 면만 바뀌었지 형태와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 부분 차용과 부분 변형

'직설적 표현'의 반감에서 사용되는 유형으로 전통건축이 가지는 디자인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형태를 단순화 및 추상화 시키고 있다. 특히 벽체부와 지붕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붕부에서는 한옥과 초가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이미지 즉, 곡선과 직선의 사용이 많으며, 벽체부에서는 초석, 기둥과 주두의 구성형식을 차용하고 공포는 단순화 및 추상화를 통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표 4>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붕의 형태 변형에 따라 곡선형, 사선형과 직선형으로 분류된다.

3) 입면의 수직적 3분할 구성

이 유형은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입면구성 형식 즉, 기단부, 벽체부와 지붕부의 구성을 현대건축의 기능에 부합되는 측면에서 의장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일반 지면 보다 높게 구성된 기단부분은 공간의 위계(hierarchy)를 설정하여 문화시설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고, 기둥 열(列)로 이루어진 벽체부분은 상징적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전통건축의 처마공간과 같이 일종의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상부에 높게 솟아 있는 전통적 이미지의 지붕형태는 친근감을 생기게 한다.

23) 디자인 요소로서 형태와 여기에 가해지는 디자인 기법들이 포함된다.

21) 장순용, 전통건축의 공간적 연결기법과 패턴, 플러스, 통권29호, 1989, p.144.

22)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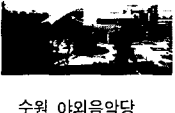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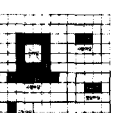

4) 개념적 이미지 적용

전통건축의 디자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현대적 디자인 어휘로 일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수원 야외음악당의 경우에는 전면광장 부분과 무대, 객석부분과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했는데 '가벽'이라는 디자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수원성벽'이라는 성벽의 개념적 이미지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다.

5) 디자인 원리의 적용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형태적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전통건축 속에 내재된 디자인 원리를 현대건축에 사용한 것이다. <표 3>의 수원 문화회관에서 보면 대칭적 입면구성과 수평선의 강조는 의장요소 및 원리로서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례이다.

<표 3> 현대건축에 나타난 의식적 표현 경향 분석 - 문화시설




종 류	유형 및 대표 사례		내 용			비 고	
	유 형	대표 사례	전통건축의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인용 / 내용 ↳	현대적 표현		
형 태	직설적 표현	 강릉문화예술회관	·기단 : 장대석 기단 ·벽 : 초석+기둥+주두형식 / 배흘림 기법 ·지붕 : 맞배지붕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형태 및 형식을 직설적으로 사용 ·'강릉 객사문'의 비례 사용	·재료적인 측면에서 나무에서 돌로 바뀌었지만 형태적인 면에서는 同一	·'전통성'을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쉽게 인지 가능	
	부분 차용 + 부분 변형	 수목 과학관	 초가 / 등근 지붕	·전통지붕 형태 + ·목구조 가구법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를 일부는 형식을 차용하고, 일부는 단순화 및 추상화 시켜 전체적으로는 '전통적 이미지' 추구	·단편적인 전통건축의 디자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초가지붕 형식과 목구조의 공포 사용) ·전통 초가지붕의 등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단순화시켜 지붕 형태를 구성	·'직설적 표현' 방법의 반감으로 부분적으로 적용
	입면의 수직적 3분할 구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지붕 벽 기단	·기단+벽체+지붕의 3단 구성 형식 적용	·현대건축의 기능에 부합되는 측면에서 입면을 수직으로 3단 구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장적 요소로 사용	·현대건축의 기능에 부합되는 측면에서 입면을 수직으로 3단 구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장적 요소로 사용	
	개념적 이미지 적용	 수원 야외음악당 가벽	·수원성의 성벽 이미지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일부를 디자인 모티브로 부분적으로 사용	·현대건축에서 공간을 구획함에 있어 '가벽'이라는 디자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수원 성벽'의 의미를 전용	·전통건축의 부분을 현대건축의 일부에 적용	
	디자인 원리의 적용	 수원문화회관	 울곡사 대웅전 / 대칭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디자인 원리를 적용 ·대칭적 입면구성 ·수평성 강조	·문화시설로서의 정면성과 상징성을 부여		
	중정공간의 형성	 강릉문화예술회관	 채와 마당	·전통건축의 배치구성 방법인 채와 마당의 관계성 ·스케일감은 다르다.	·기능별 공간 구획과 매스의 분절을 통하여 '마당' 개념의 옥외 공간 구성 ·실내에서는 홀과 로비의 역할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인 '마당'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	
공간	치마공간의 현대적 변용	·청주 예술의 전당 ·춘천 문화예술회관 ·강릉 문화예술회관 ·수원 문화예술회관 ·울산 문화회관	 치마 공간	·전통건축 치마공간의 현대적 사용 ·스케일감은 다르다.	·치마공간이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에서 전이 공간의 역할 담당 ·전통건축 지붕의 현대화에 따른 부수적 공간 및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용		
재료	화강석과 목재의 사용	·청주 예술의 전당 ·강릉문화예술회관 등	·전통건축의 재료 : 흙, 돌, 나무 등	·전통건축의 재료를 외장재로 사용	·전통건축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도		
기 타		·강릉 문화예술회관 ·춘천 문화예술회관 ·진도군민종합복지관 ·경기도100주년기념관		·전통적 외부공간 디자인 수법 ·전통 사상의 현대화 - '추화' ·추상적 개념을 구축화	·인공산+계류와 方池 설치 ·현대적 건축물과의 조화 ·한국적 아름다움의 표현		

(2) 공간

1) 중정공간의 형성

한국의 전통건축은 채와 채의 분화에 의해 '마당'이라고 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가 생긴다. 이러한 옥외공간은 농경 생활과 맞물려 다용도의 성격을 지닌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현대의 많은 건축가들은 과거의 '마당' 개념을 현대의 옥·내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 부분 차용과 부분 변형에 따른 내용 분석 - 지붕부

유형	대표 사례	내용	기타 사례들
곡선형	 춘천 종합 문화 예술회관	· 지붕 : 초가지붕의 형태(ㄷ) 단순화 + · 공포 : 추상화 + · 벽체 : 초석, 기둥, 주두 구성 형식 차용 / 민출림 기법 적용	·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 극장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수목과학관
지붕	 전도 군민종합복지회관	· 지붕 : 한옥지붕(ㄴ)의 단순화 + · 벽체 : 초석, 기둥, 주두 구성 형식 차용	· 광주문화예술회관
직선형	 울산문화회관	· 지붕 : 전통 지붕선(수평)을 단순화 + · 벽체 : 초석, 기둥, 주두 구성 형식 차용 / 배출림 기법 적용	· 수원문화회관

<표 3>의 강릉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관리시설 및 체육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능별 공간 분리 및 매스의 분할을 통하여 중앙부에 '광장'이라는 옥외공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수법은 과거 전통건축의 배치에서 보여지는 채와 마당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구성을 3개의 매스로 처리하고 가운데 부분에 마당개념의 옥외광장을 두거나 (강릉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실내에 로비(lobby)나 홀(hall)의 성격을 갖는 내부공간을 두는 유형(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극장, 수목과학관)으로 나뉜다.

2) 처마공간의 현대적 변용

처마란 기둥 밖으로 빠져나온 서까래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으로 전통건축에서는 처마를 깊이 빼내어 여름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외부이면서 내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중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진다.

현대건축에서는 전통건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지붕부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처마 공간'이 탄생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강한 음영(陰影)이 생기도록 깊은 처마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출입구 부분의 처마공간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겸하기 한다. 이렇듯 처마공간은 전통건축에서 사용되어진 의미와는 다르게 현대건축에서 디자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재료

전통건축의 재료를 현대건축의 외장재로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도하고 있다. 재료의 선택은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외장 요소로 사용함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건축은 흙, 돌 그리고 나무로 된 구조체를 형성하면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건축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조를 해결하고 외장 요소로는 구조와 별개의 문제로 고려되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통적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료의 선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화강석과 목재의 사용이 눈에 띈다. 또한 석재타일(강릉문화예술회관)과 석재 뿔칠마감(춘천종합문화 예술회관) 등으로 유사한 느낌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4) 기타

전통적인 디자인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것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어진다. 그러나 의식적 디자인 경향에서 <표 3>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통사상과 관련된 디자인 수법과 외부공간 디자인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통적인 조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통적 이미지를 주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4.2. 무의식적 표현 경향

건축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디자인 결과물에서 전통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디자이너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많은 디자인 어휘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즉, 전통성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건축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디자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건축가들의 디자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전통적 표현 방법들을 살펴본다.

(1)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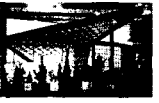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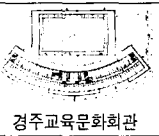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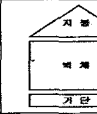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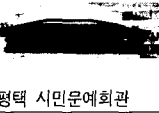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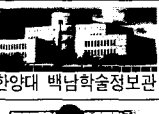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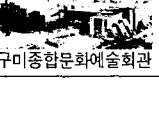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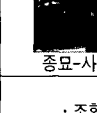
1) 형태 이미지의 단순화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가 가지는 형태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전통건축의 지붕 형태를 추상화 및 단순화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표 5>의 국제방송 센터의 경우는 한옥의 처마곡선을 단순화 시켜 날카로운 예각 처리로 디자인하고 있고, 한마음회관에서는 '사모지붕' 형태를, 제주관광센터는 '초가(草家)'의 둥근 이미지를 지붕 구성에 도입하고 있다. 전체 보다는 일부분에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며 특히 전통건축의 지붕이 가지는 형태적 이미지가 건축가의 무의식 속에서 작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2) 일부 형식의 부분 차용(24)

24)의식적 표현경향의 "부분차용과 부분변형"은, 전체구성은 전통건축의 삼분(三分) 구성원리를 따르고 부분적인 일부 형태에서 단순화 및 추상화되고 있는 것이고, 무의식 표현경향에서의 "일부형식의 부분 차용"은

<표 5> 현대건축에 나타난 무의식적 표현 경향 분석

종 류	유형 및 대표 사례		내 용			비 고	
	유형	대표 사례	전통건축의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인용 / 내용 ⇨	현대적 표현		
형 태	형태 이미지의 단순화	 국제방송센터	 처마 + 활주	·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형태를 단순화 및 추상화 · 전통건축의 처마곡선을 날카로운 사선으로 처리	· 날카로운 여각의 트러스 지붕은 전통의 '처마'를 표현	· 제주관광센터 · 방이문화센터 · 대덕과학문화센터 · 한국타이어문화센터 한아름회관 · 국립영화제작소 · 동국대정보문화관	
	일부 형식의 부분 차용	 경주국립박물관	· ex) 지붕, 창호, 원형 기둥, 내외담 등	·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가 가지는 내재된 '形式'을 적용 · 지붕의 형식→평면 디자인	· 전통 '초가' 지붕의 곡선형 이미지를 매스에 표현 · 원형의 이미지 선화	전통 부분 ⇨ 현대 부분 · 부산 방송국 · D&S문화공간 ·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 동국대정보문화관 · 통일전망대 · 창무예술회관 · 여수문화방송국 등	
	일부 형태의 전체 차용	 기독교 방송사옥	 전통창호-并자 창과 띠살창(窓)	· 전통 창호 또는 전통건축의 평면구성의 형태를 차용	· 전체 외관을 '수평과 수직선'으로 구성된 격자형으로 구성	전통 부분 ⇨ 현대 전체 · 현대예술관 · SBS등촌동 공개홀 · 국립영화제작소 · 여수문화방송국 · 광주기독교 방송국	
	입면의 수직적 3분할 구성	 서울교육문화회관	 지붕 벽 기단	· 지붕 벽+지붕은 3단 구성 형식 차용	· 저층부(conference, accommodation, recreation 기능) + 고층부(객실) + 지붕부(스카이라이프 등)로 용도별로 층별 매스 계획	· 방목기념관 · 기독교방송사옥 · 영상이카데미 · 통일전망대	
	개념적 이미지 적용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성(城)의 성벽	· 전통 건축이 갖는 개념적 형태 이미지 차용	· 매스의 분절과 중첩에 의한 '성곽' 이미지 표현	전통 전체 ⇨ 현대 전체 · 구미 종합문화예술회관	
	디자인 원리의 적용	 평택 시민문화회관	· 대칭적 입면구성 · 매스의 3분할 (ex: 三門, 중층 등) · 수평성 강조	·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디자인 원리 적용	· 문화시설로서 '정면성' 부여	·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 서울교육문화회관 · 경주국립박물관 · 부산 방송국 · 동국대정보문화관 · SBS등촌동공개홀 · 창무예술회관 등	
	공 간	공간의 3분할적 구성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 객사-공간 3분	· 위계에 따른 매스의 분할로 공간구성	· 중앙에 대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을 두고 좌우에 열람실을 두는 공간구성	· 평택 시민문화회관 · 제주관광센터
		중정공간의 형성	 대덕과학문화센터	 병산서원의	· 전통건축의 학교 서원, 사찰 등에서 볼 수 있는 중정 공간 · 채와 마당의 관계성	· '마당' 개념의 중정 공간 형성	· 부산광역시립기념관 · 광진구 도서관 · 한국타이어문화센터 한아름회관 · 서울교육문화회관 · 국립영화제작소 · 광주기독교방송국
		회랑 공간의 현대적 변용	 현대 예술관	· 회랑(回廊)	· 전통건축 '회랑'의 개념이 현대적으로 사용	· '회랑'이 현대건축의 '통로' 개념으로 사용 · 의장적 요소로서 변용	· 평택 시민문화회관
	재 료	전통재료 사용	 제주 관광센터	· 전통재료(돌) 사용	· 전통재료의 사용에 의한 '친근감' 유도	· 돌(회화석, 제주석) + 마감(잔다듬, 버너구이, 흑두기 등)	·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 기독교방송사옥 · 통일전망대 · 예술의전당 미술관 · 국제방송센터 · 서울교육문화회관 · 평택시민문화회관 · 여수문화방송국 · 광주기독교 방송국
현대적 재료로 대응		 부산방송국	· 전통재료의 '질감' 또는 'color' 재현	· 현대적 재료로 '전통재료'의 효과	· '알루미늄 페널', '시멘트블록', '폼칠' 또는 '노출콘크리트' 등의 표현	· 부산 방송국 · 광진구 도서관 · 부산광역시립기념관 · 방목기념관 · SBS등촌동 공개홀 · 방이문화센터 · 대덕과학문화센터	
디자인 형식 모방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중묘-사고석담장	· 전통 건축술인 '쌓기 방식'의 효과	· 현대건축 외장재에서 '전통 담장' 또는 '성벽' 이미지를 느낌	· D&S 문화공간 · 부산광역시립기념관	
기 타	전통사상의 현대화		· 조화(調和)	· 현대적으로 적용	· 주변 환경과의 조화 표현	· D&S 문화공간 ·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 기독교방송사옥 · 경주국립박물관 · 대덕과학문화센터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내재된 조형 형식(形式)의 일부분을 현대건축 디자인의 일부에 반영한 유형이다. <표 5>의 경주국립박물관은 매스계획에 있어서 '곡선형'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 '초가' 또는 '원형의 기둥'에서 볼 수 있는

등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는 매스의 일부분을 곡면처리하고 있고, 통일전망대의 경우는 매스를 원형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 정보문화관의 곡선형의 '가벽'은 '내외담' 또는 '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시각적으로 부담 없는 곡선형의 디자인은 전통건축이 가지 <표 5> 현대건축에 나타난 무의식적 표현 경향 분석 - 문화시설

한국 전통건축 조형 형식(形式)의 일부분을 현대건축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설고 있는 구성형식의 일부를 현대건축에서 차용한 유형으로 분석된다.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곡면(曲面)의 공간은 활용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상징적이며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현대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한국건축가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는 다분히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전통의 흔적으로 인식된다.

3) 일부 형태의 전체 차용

현대건축의 전체 외관에서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일부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 4>의 기독교방송국은 CRC 패널과 커튼월 방식으로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통건축의 격자창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그리드(grid) 패턴의 디자인 구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통건축의 평면구성 형태와 전통 창호(窓戶)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건축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을 보고 과거 우리가 생활하였던 전통건축의 친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4) 입면의 수직적 3분할 구성

전통건축의 형태구성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단과 벽체 그리고 지붕의 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디자인 수법은 현대건축에서도 매스를 다룰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표 5>의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기능이 다른 프로그램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스의 구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독교방송사옥의 경우는 재료(화강석과 유리 커튼월) 및 사각형 매스의 크기로 3단 구성법을 따르고 있다. 또한 방목기념관은 상당히 추상적인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러 사례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은 전통건축의 3분할 구성법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개념적 이미지 적용

전통 건축은 재료와 구조상의 한계에 의하여 형태상의 유사성은 있지만 <표 2>에서와 같이 용도에 따라 공간 디자인의 원리는 다르다. 이렇듯 과거 건축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구성방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현대건축의 의장요소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표 5>의 예술의 전당 미술관은 '성(城)의 성벽'과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성벽²⁵⁾은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의 건축물이며 밑부터 큰 돌을 쌓고 위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아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돌이라는 사각형의 매스들이 중첩되어 싸여 있는 형상인 것이다. 이러한 수법이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유사 패턴의 매스들을 중첩하여 외부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6) 디자인 원리의 적용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디자인 원리가 현대건축에 반영된 유형인데 건축가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단편적인 전통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의 평택 시민문예회관은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대칭적 입면구성' 및 '매스의 3분할적 구성'의 한 사례로 분석된다. 전통건축 가운데 권위건축은 대칭적 구성을 통하여 건축물의 성격을 강하게 인지시키고 있으며, 형태 및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3분할적 구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주교육문화회관, 서울교육문화회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수평선'을 의장요소로 강조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는데,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는 철골 트러스에 의해서, KBS 속초방송국에서는 외장타일을 이용해서, 여수문화방송국에서는 건물 매스에 의해 수평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건축가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을 볼 때, 우리는 주변 환경과 부조화되지 않으면서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2) 공간

1) 공간의 3분할적 구성

전통건축의 상징적이고 주요한 건물²⁶⁾은 중심 공간(大廳)과 그 건물의 좌우에 부속 공간(室)으로 된 3분 구성²⁷⁾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법은 공간 인지에 있어서 명확함을 줄 수 있어 현대건축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의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은 전체 매스계획 및 공간구성 수법에서는 전통건축의 '객사(客舍)' 또는 '향교의 명륜당(明倫堂)' 등에서 볼 수 있는 3분할적 공간 구성법을 찾을 수 있다. 평택 시민문예회관은 객석과 무대의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리부와 소전시설의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중정공간의 형성

①번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공간의 3분할 구성에서 중심 공간 부분인 중앙 부분이 전통건축의 '마당' 즉 중정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의식적 경향에서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마당'과 같은 복합적 성격의 공간을 만들었지만, 무의식 측면에서 보면 매스의 분절을 통하여 내·외부 공간으로서 홀 또는 광장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문화시설로서 꼭 필요한 기능의 공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건축의 '마당'과 같은 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회랑 공간의 현대적 변용

전통건축에서 '회랑'은 주요 전각(殿閣)들의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대건축에서는 <표 5>의 현대 예술관에서의 각기 각각의 기능(스포츠동+극장동+업무시설동)이 다른 3개의 동(棟)을 연결하는 '통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평택 시민문예

26)관아의 동헌(東軒), 향교의 명륜당(明倫堂), 객사(客舍) 등
27)실(室)+대청(大廳)+실(室)의 3분 구성

25)흙벽으로 된 토성(土城)과 돌로 구성된 석성(石城)이 있다.

회관에서는 '회랑'의 형태 즉, 기둥 열과 지붕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입면의 외장 요소로 사용하는 2가지 유형으로 분석된다.

(3) 재료

현대 건축가들은 건축의 외장 재료를 외장요소로 많은 고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도 고려가 되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재료가 가지는 질감(texture), 색깔(color) 등의 다양한 모습들에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많은 건축가들이 '화강석'을 내·외부의 재료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 속에 '돌'에 대한 친숙감 즉, 전통 소재로서의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재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전통건축의 재료들을 무의식적으로 외장재로 사용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며 재료 표면을 가공²⁸⁾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고 있다. 둘째는 전통 소재를 직접적으로 외장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질감'이나 '색깔' 등의 효과를 현대건축의 재료로 재현하는 유형이다. '알루미늄 패널', '노출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뿔칠' 등의 재료는 화강석의 느낌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건축에서 재료로 표현된 디자인 형식을 모방한 유형이다. <표 5>의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은 '붉은 벽돌 치장쌓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의 '성벽 쌓기' 또는 '사고석 담장'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D&S문화공간의 외장재인 '인도 사암'은 '전통 담장'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4) 기타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자연환경에 거슬리지 않는 조화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건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현대건축에서는 '조화'라는 개념은 자연환경, 건물, 사람 등과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 밑바탕에는 과거에서 내려온 '전통 사상'이 건축가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고 본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현대건축 가운데 문화시설을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²⁹⁾에서 전통성 표현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이라는 창조적 세계는 항상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적 측면이 고려되어진다. 이것은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건축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문화를 자

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디자인 과정 속에 반영되어 표현되어진다.

둘째, 현대건축을 건축가의 정신적인 측면 즉, 의식(consciousness)과 무의식(unconsciousness)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이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형태, 공간, 재료와 기타의 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건축가의 의식적 표현경향을 살펴보면, 전통성을 표현함에 있어 형태적 측면에서는 직설적 표현, 부분 차용과 부분 변용, 입면의 수직적 3분할, 개념적 이미지 적용과 디자인 원리의 적용이라는 유형으로 나뉘고,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중정공간의 형성과 처마공간의 현대적 변형으로 정리된다. 또한 재료적 측면은 전통재료인 화강석과 나무의 사용 예가 보이고, 기타부분에서는 전통적 외부 공간 디자인 수법, 조화의 개념의 적용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의 도입 사례들이 보인다.

셋째, 건축가의 무의식적 표현경향을 살펴보면, 형태부에서는 형태 이미지의 단순화, 일부 형식의 부분 차용, 일부 형태의 전체 차용, 입면의 수직적 3분할 구성, 개념적 이미지 적용과 디자인 원리의 적용이라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공간의 3분할적 구성, 중정공간의 형성과 회랑공간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유형이 발견되고, 재료적 측면에서는 전통재료의 사용, 현대적 재료로의 대응과 디자인 형식의 모방의 사례들이 보인다. 기타 사항에서는 전통사상의 하나인 '조화'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은 디자인 과정 속에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건축가의 창조물인 건축에서 전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건축가의 무의식 세계 속에 전통건축의 디자인 어휘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디자인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전통건축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것이 건축가 자신의 디자인 어휘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용되어질 때 한국의 현대건축은 좀 더 풍요롭고 세계적인 건축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전통건축의 공간구성, 플러스, 통권24호, 1989.
2.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8.
3. 이호진·김득선, 건축조형사고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7.
4. 장순용, 전통건축의 공간적 연결기법과 패턴, 플러스, 통권29호, 1989.
5. 칼 구스타브 옉 외, 이부영 외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6. 하석원, 내재된 무의식이 조형예술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석사논문, 1995.
7. Bryan Lawson, 윤장섭 역, How Designers Think(디자이너의 사고방식), 기문당, 1996.
8. Denis Dutton, Michael Krausz,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Science and Ar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1.
9. Diana Agrest, "Design versus Non-Design",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K. Michael Hays(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1998).

<접수 : 2003. 10. 29>

28)잔다듬, 혹두기, 버너구이 마감 등

29)무의식적 표현은 작가의 주된 개념이 될 수 없지만 현대건축에 나타난 건축가의 의식과 무의식적 표현 경향들을 살펴봄으로써 1990년대 이후, 건축가들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법들을 가늠해 보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디자인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의미 있다.